

「젊은 굤맨 브라운」에 나타난 두 개의 숲 경험과 신앙상실의 의미

장 경 욱

I.

「젊은 굤맨 브라운」¹⁾(Young Goodman Brown, 1836)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브라운의 신앙상실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평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경험은 분명 그의 신앙에 일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논의에서 신앙이 갖는 중요성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작품이 세상의 선과 악을 포괄할 도덕적 비전을 얻지 못한 젊은이의 이야기라거나²⁾ 혹은 브라운이 결혼을 통해 입문하는 성(性)의 세계에 느끼는 심리적 공포를 드러낸다고³⁾ 해석하는 경우를 보면, 브라운에게는 너무도 절절한 신앙상실의 경험이 다른 도덕이나 심리적 진리에 대한 비유적 경험으로 환원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도덕적 진리건 혹은 심리적 진리건 간에,

-
- 1) 이 글의 텍스트로는 James McIntosh, ed., *Nathaniel Hawthorne's Tales*(New York: Norton, 1987)를 삼았으며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 면 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 2) 도덕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읽는 대표적인 관점은 테렌스 마틴(Terence Martin)과 해리 레빈(Harry Levin), 로이 매일(Roy R. Male)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심리주의적인 접근을 차용하지만 브라운이 도덕에 대한 왜곡된 경험을 절대화함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한 포괄적인 진리를 얻지 못한다는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Terence Martin, *Nathaniel Hawthorne*, revised ed.(Boston: G. K. Hall, 1980) 81-87과 Harry Levin, *The Power of Blackness*(Athene, Ohio: Ohio UP, 1958) 225, 그리고 Roy R. Male, *Hawthorne's Tragic Vision*(New York: Norton, 1957) 76-80을 참조.
 - 3) Paul J. Hurley, "Young Goodman Brown's 'Heart of Darkness,'" *American Literature* 37(1966): 413 참조. 이와 유사하게 심리적 투사의 문제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비평의 예로는 Frederick C. Crews, *The Sins of the Fathers: Hawthorne's Psychological Themes*(New York: Oxford UP, 1966) 98-100과 Michael Tritt, "Young Goodman Brown' and the Psychology of Projection," *Studies in Short Fiction* 23(1986): 113, Rita K. Gollin, *Nathaniel Hawthorne and the Truth of Dreams*(Baton Rouge and London: Louisiana State UP, 1979) 123-28이 있다.

이 작품이 전하는 그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진리가 비평가 자신의 '진리'가 아니라 작품의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려면 브라운의 신앙에 일어난 이 특이한 경험은 비유적으로 해석되기 전에 먼저 문자그대로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 대한 갖가지 종류의 해석들, 예컨대 도덕이나 심리적 관점을 포함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조차도 브라운의 신앙에 대한 해명에서 먼저 출발하지 않는 한 공허한 논의로 귀결되기 쉬운 것이다.⁴⁾

물론 신앙 자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평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리오 레비(Leo B. Levy)는 브라운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신앙과 브라운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브라운의 신앙, 즉 페이지가 악마와 별도로 계약을 맺고 내통하는 점이 이 작품의 가장 근본적인 계시라고 말한다. 그것은 신앙이 브라운을 배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믿음이란 결국 믿는 자의 환상에 불과한 허구임을 말해준다는 것이다.⁵⁾ 국내의 논자 중에는 한기욱이 신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점에서 레비와 유사한 접근을 보여준다. 그러나 브라운의 신앙에 대한 그의 해석은 레비의 해석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이 작품이 문제 삼는 신앙은 레비가 말하는 인간의 믿음 일반이 아니라 "미국의 근대를 여는 주된 이념"으로서의 청교주의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청교도 사회가 겉으로는 더없이 독실한 신앙의 공동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의미도 포괄하는) '신념'을 잃어버린 공동체일지 모른다는 '어두운 진실'"⁶⁾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브라운의 신앙을 미국의 역사적인 청교주의로 해석하는 한기욱의 견해는 도덕이나 심리적인 읽기에 반대하고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레비와 공통점을 갖지만 정작 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고는 레비의 견해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한기욱이 작품을 "인간 본성에 내재한 악마성이라는 초역사적 보편성"⁷⁾으로 읽는 이들

4) 이 작품에 대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예로는 Michael Colacurcio, *The Province of Piety: Moral History in Hawthorne's Early Tales*(Cambridge: Harvard UP, 1984) 286-93과 Michael Davitt Bell, *Hawthorne and the Historical Romance of New England*(Princeton: Princeton UP, 1971) 76-81, 그리고 E. Miller Budick, "The World as Specter: Hawthorne's Historical Art," *PMLA* 101(1986): 218-25를 참조.

5) Leo B. Levy, "The Problem of Faith in 'Young Goodman Brown,'"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74(1975): 380-86 참조.

6) 한기욱, 「모더니티와 미국 르네상스기의 작가들」, 『안과밖』(1998 상반기): 72와 71.

을 비판하는데 반해, 레비가 “청교도의 경험과 그것의 전도된 형태인 악마숭배를 호손이 등치해 놓은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될 극적인 과장”(Hawthorne's equation of the Puritan experience with the devil-worship that is its inversion is a form of dramatic hyperbole that should not be taken literally)이라 주장하면서 작품을 미국의 청교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읽기를 반대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두 평자의 입장은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읽기 방식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브라운의 신앙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으려는 시도는 서로 갈리는 두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⁸⁾

물론 브라운의 이야기가 17세기 후반에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3세대가 겪은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수한 문학작품이 그렇듯 이 작품이 특정한 상황을 빌어 인간에게 보편적인 차원의 의미를 담을 여지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역사적 신앙과 보편적 믿음의 관계는 그렇게 쉽사리 일도양단 할 수 없도록 맞물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한 쪽 편을 들어주려는 시도는 어리석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브라운의 신앙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작품이 브라운의 신앙을 그럴 때 역사적인 청교주의 신앙의 성격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일반적인 믿음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그리는지의 검토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글의 입장은 우선적으로 브라운의 신앙이 미국 청교도의 후손으로서 갖는 역사적 신앙이라는 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의 신앙적 경험이 허용하는 보편성의 의미는 그 다음에 따져보는 것이 순리라는 쪽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두 평자 중에 어느 한 쪽 편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글은 두 평자의 글이 작품에 대한 동일한 오해에 기초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오해를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둘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을 넘어설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단적인 예로써 레비와 한기옥은 작품의 숲경험을 하나의 단일한 경험으로 보는 공통된 문제점을 갖는다. 레비는 페이스가 브라운을 버린 것이 “만사의 축”(the crux upon which everything turns)을 이룬다고 말하며, 한기옥 역시 “브라운이 이(청교도의 신념)를 상실하고 난 후”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말한

7) 한기옥 70.

8) Levy 386.

다. 그들은 브라운의 신앙상실이 그가 숲에서 겪은 경험들을 포괄하는 사건이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⁹⁾ 이런 관점에서는, 브라운이 신앙을 잃는 장면과 그의 불행한 인생이 서술되는 결말부의 장면 사이에 있는 중요한 경험이 무시될 위험성이 있다. 신앙을 잃은 후에 브라운이 경험하는 악마적 집회 장면은 분량으로 보나 그 장면의 강렬성으로 보나 매우 중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의에서는 간과되고 있으며 기껏해야 신앙상실의 경험에 대한 부연적인 경험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운의 불운한 인생은 그가 신앙을 잃기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뒷부분 숲의 집회에서 악마에게 저항하고 신앙을 지킨 결과로 생겼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그러한 가정은 위험하다. 브라운의 인생을 바꾼 계기는 신앙상실보다는 오히려 신앙상실 이후의 악마적 집회 장면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상실은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브라운이 숲에서 겪은 유일한 경험도 아니고 숲경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다. 작품의 구성을 보더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대목은 악마와 토론하는 앞의 숲장면과 악마의 집회에 참석하는 뒤의 숲장면 사이에 연결부처럼 놓여 있다. 구성면에서도 신앙상실의 대목은 숲에서의 최종적인 장면이 아니라 앞의 숲경험을 마무리 짓고 뒤의 숲에서 벌어질 새로운 경험으로 입문하는 연결부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숲에서의 모든 경험이 브라운의 신앙상실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브라운의 신앙상실이 전체 숲경험의 일부로서 일어나는 점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브라운의 신앙상실이 전하는 온전한 의미란 이 두 개의 숲장면이 갖는 차이와 연속성을 규명하면서 전체 숲경험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둘 때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은 브라운이 겪는 숲에서의 숲경험이 그의 신앙상실로 완성되는 단일한 경험이 아니라 두 개의 구별된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먼저 주목하고, 그러한 경험의 맥락 안에서 신앙상실의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앞의 숲장면을 특징짓는 악마의 시험, 그 시험에 반응할 때에 보여주는 자기 신앙에 대한 브라운의 태도,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난 뒤의 숲에서 거행되는 집회 장면의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결국 악마에게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된 역설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으며, 레비

9) Levy 387과 한기욱 72를 각각 참조.

와 한기욱의 대립을 넘어서는 관점에서 역사적 신앙으로서의 청교주의가 보편성을 획득할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신앙을 잃기 전에 브라운이 악마와 만나고 동행하는 숲은 나중에 숲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악마적 집회로 들어가기 위한 예비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장면의 극적인 갈등을 형성하는 것은 숲으로 브라운을 계속 가게 하려는 악마의 의지와 마을로 돌아가려는 브라운의 의지와의 충돌이다. 브라운을 숲의 심장부로 가게 하려는 악마의 의지는 유혹의 형태로 관철되는데, 이것은 브라운의 신앙에 대한 시험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둘이 처음 만나서 나누는 대화 부분을 보자.

“친구여,” 느린 걸음을 완전히 멈추면서 상대방이 말했다. “여기서 그대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려 하오.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 주저되는 점들이 있소.”

“그래?” 뱀을 든 자가 입을 벌려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계속 걸으세, 가면서 우리 따져보자고. 그리고 내가 만일 그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그대는 돌아서면 되지. 우리는 숲에 아직 조금 밖에 안 왔는걸.”

“Friend,” said the other, exchanging his slow pace for a full stop, “having kept covenant by meeting thee here, it is my purpose now to return whence I came. I have scruples touching the matter thou wot’st of.”

“Sayest thou so?” replied he of the serpent, smiling apart. “Let us walk on, nevertheless, reasoning as we go, and if I convince thee not thou shalt turn back. We are but a little way in the forest yet.” (67)

여기서 악마는 브라운에게 “따져보자고”(reasoning) 제안한다. 이 따져보기는 숲여행에 대한 브라운의 가치판단을 논리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이며, 악마는 그러한 논리적 검토의 과정을 통해 브라운을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 숲으로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브라운의 ‘의지’의 이면에는 숲에 대한 ‘판단’이 있고, 이 ‘의지’와 ‘판단’이 모두 브라운이 갖는 믿음에서 비롯된

다고 보면, 악마의 제안은 궁극적으로 브라운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라운의 믿음이 악마의 시험에 견딘다면 그는 마을로 안전하게 복귀할 터이지만 악마가 이긴다면 그는 숲의 핵심에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브라운이 결국 숲의 심장부까지 간 사실은 이 시험에서 그의 믿음이 포기될 정도로 어떤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 숲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브라운이 갖고 있는 믿음, 특히 악마의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것이 악마로부터 어떤 형태의 도전을 받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브라운의 신앙에 대한 악마의 시험은 그의 구원과 파멸의 갈림길이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그의 실존적인 구원의 의미만 연루되는 것은 아니다. 악마의 심문에 대한 브라운의 대응을 묘사하는 연속적인 장면들을 보면, 시험의 대상으로 상정되는 브라운의 신앙에는 뉴잉글랜드 식민지의 역사와 그 사회의 공적인 이념의 문제도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라운은 그의 선조들이 그런 사악한 볼 일로 숲에 간 적은 없기에 (“My father never went into the woods on such an errand, nor his father before him,” 67)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 말은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야 자신의 구원이 획득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브라운에게 ‘아버지의 신앙’¹⁰⁾을 따르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때의 브라운은 청교도들의 혈연적 후손일 뿐 아니라 신앙적인 후손으로서 시험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으로 가려는 그의 열망은 ‘아버지의 아들,’ 청교도의 후손으로서의 자기정체를 확인하려는 열망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악마의 시험은 ‘아버지의 신앙,’ 이 공동체의 성원을 묶어주는 역사적 이념으로서의 청교주의에 대한 시험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브라운의 청교주의 신앙에는 뉴잉글랜드 공동체의 공적인 이념의 성격도 담겨 있다. 브라운은 선조들이 숲에 갔다면 “그런 종류의 아주 사소한

10) 여기서 브라운이 모범이 되는 선조들의 신앙을 통칭해서 ‘아버지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운에게 선조들은 ‘아버지’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 표현된다. 예를 들어 그는 “나의 아버지” (My father, 67)와 “그에 앞서 그의 아버지” (his father before him, 67)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선조들을 표현한다. 이런 사실에 더해 악마와 브라운의 관계가 부자지간처럼 묘사되거나, 나중에 숲에서 악마가 그의 아버지의 형상을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교도의 역사적 신앙에 대한 통칭적 개념으로써 ‘아버지의 신앙’이라는 용어는 무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청교도 공동체의 공적인 신념으로서 청교주의는 ‘아버지의 신앙’과 대비되면서 동렬에 놓을 수 있는 개념으로 ‘마을의 신앙’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소문만 있었다라도 그들은 뉴잉글랜드에서 추방되었을 것”(seeing that the least rumor of the sort would have driven them from New England, 67) 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공동체에서 개인의 종교적인 행위가 ‘추방’이라는 사회적 처벌의 형태로 규제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신앙은 브라운의 공동체에서 통치의 메카니즘이자 공적인 이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브라운은 이 ‘마을의 신앙’을 따라야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때의 브라운은 뉴잉글랜드 공동체의 성실한 일원으로서 시험에 참가하고 있다. 천국에 가려는 브라운의 열망에는 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정체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따라서 그의 신앙에 대한 악마의 시험은 ‘마을의 신앙,’ 즉 세일럼 공동체에서 현재적으로 관찰되는 사회적 이념으로서의 청교주의에 대한 검토를 동반하게 된다.

결국 ‘마을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과 더불어 브라운이 천국의 인도자로 상징하는 신앙인 셈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신앙이 아니라 뉴잉글랜드 공동체에서 청교주의가 관찰되는 이중적 속성, 즉 역사적으로 전승되면서 현재적으로도 관찰되는 이념으로서의 성격을 지칭하는 말들이다. 그것들은 이 공동체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다. 예컨대 브라운이 “내가 세일럼 빌리지의 우리 목사님, 그 선한 어르신인 눈길을 어찌 대할꼬?”(how should I meet the eye of that good old man, our minister, at Salem village? 67) 라고 근심할 때 보면, 그의 내면에서 목사는 ‘마을의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선한 어르신’으로서 아버지의 위상을 동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브라운이 규범으로 삼는 청교주의 신앙은 ‘마을’의 목사가 대표하는 사회적 이념인 동시에 ‘어르신’으로서의 목사가 나타내는 역사적인 신앙으로서 인격적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악마를 물리치고 페이스에게 복귀하려는 브라운의 결심, 천국에 대한 그의 갈망, 이런 것들은 이 세상 너머의 세계에 대한 지향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공동체가 공인하는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귀속하려는 열망을 담는다.

이와 같이 브라운의 신앙에 청교주의가 뉴잉글랜드의 역사적 사회적 신앙으로서 갖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주목할 때, 우리는 그의 신앙에 대한 악마의 시험을 미국의 역사적 이념으로서의 청교주의에 대한 시험으로 읽을 엄두를 갖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하다. 브라운의 시험에 청교주의의 제반 역사적 사회적 성격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할 수 있어도 작품의 본질적인 의미와 연관짓기에는 아직 모자라기 때문이다. “근대를 여는 주된 이념으로서의” 미국의 청교

주의의 문제는 작품에서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설혹 그것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브라운의 신앙이 청교주의를 착실하게 구현하는지 아니면 왜곡된 청교주의를 대변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악마의 시험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브라운의 신앙'이라는 점에서 브라운이 지닌 믿음과 청교주의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브라운은 마을의 여타 청교도들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가령 마을을 떠나서 악마를 만나는 것 자체도 마을의 청교도들과는 다른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불운한 죽음의 인생을 살게 된 것도 브라운에게 남다른 면이 있기에 초래된 결과이다. 그것은 브라운이 보여주는 믿음이 통상적인 청교주의와는 어긋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악마의 시험을 빌어 청교주의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라운의 '청교주의'와 뉴잉글랜드 공동체가 공유하는 청교주의와의 차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브라운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몇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 때문에 부정적으로 기우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는 브라운이 여행 전에 이미 악마와 만날 약속을 맺은 사실이다. 악마의 숲으로 가는 것 자체가 성실한 신도가 할 행동은 못되는데다가 악마와 만날 약속까지 미리 한 걸 보면 브라운은 분명 문제가 있는 신자로 보이는 것이다. 또 하나 브라운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사례는 그가 악마에게 너무 쉽게 속는 점이다. 브라운이 숲에서 보는 구디 클로이즈(Goody Cloyse)나 목사 등의 모습을 끝이곧대로 믿거나 선조들과 뉴잉글랜드의 지도층에 대한 악마의 비방을 의심하지 않는 점은 그의 신앙에는 불리한 증거들이다.¹¹⁾ 악마에게 그렇게 쉽게 속는 사람이라면 별로 현명한 인간은 못 될 터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은 분명 브라운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사례들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이 사례들은 그것이 놓여 있는 맥락에서 떼어놓고 거론됨으로써 그 사실 자체까지 왜곡되기도 쉽기 때문이다. 가령 악마와 브라운이 계약을 맺은 사실을 빌어 브라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11)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구디 클로이즈나 목사 등의 등장이 굳이 거짓 환상인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평자들은 악마가 내세우는 증거를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당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 작품에서도 관건이 된다고 본다. 이 문제에 초점을 두는 비평의 예로는 Colacurcio 398과 David Levin, "Shadows of Doubt: Specter Evidence in Hawthorne's 'Young Goodman Brown,'" *American Literature* 34(1962): 345-51 참조.

평자들이 많은데¹²⁾ 이런 주장들에서는 그 계약이 브라운의 '사악한' 동기나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무시된다. 브라운이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계약은 악마한테 자신을 팔아 넘기려는 사악한 동기가 있다는 것까지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브라운이 악마를 만나고는 곧장 페이스에게 돌아오려는 것을 보면 그 계약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이 '불 일'을 빨리 해치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 계약의 본질은 브라운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있다. 페이스와의 이별 장면을 보자.

“내 사랑 나의 페이스,” 젊은 굤맨 브라운이 대답했다, “일 년 열 두 달의 모든 밤 중에 이 하룻밤만은 내 당신을 떠나서 묵어야만 하오. 당신이 부르듯 갔다 다시 올 나의 여행이란, 지금하고 해 뜰 때 사이에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소. 헌데, 자기, 예쁜 마누라, 당신 벌써 나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됐는데 말이야.”

“My love and my Faith,” replied young Goodman Brown, “of all nights in the year, this one night must I tarry away from thee. My journey, as thou callest it, forth and back again, must needs be done ‘twixt now and sunrise. What, my sweet, my wife, dost thou doubt me already, and we but three months married?” (65)

브라운의 모습에는 여행을 꼭 떠나야 한다는 의무감과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보인다. 숲여행은 그의 의지에 따라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며 그것도 당일 저녁에 실행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사랑하는 아내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은 페이스를 떠나서 “묵어야만” 하며, 여행은 그 날 해질녘과 해 뜰 때 사이에 “실행되어야” 한다. 악마와의 약속은 브라운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필연에 이끌려서 실행되는 약속인 것이다.¹³⁾ 따라서 이 계약을 빌어 브라운의 신앙

12) 브라운이 의도적으로 악마를 찾아간다고 보는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매티슨(F.O. Matthiessen)과 스타인(W.B. Stein)이 있는데, 이들의 입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브라운의 동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Hurley 410-11 참조.

13) 숲으로 가는 행위를 놓고 브라운의 사악한 동기를 주장하는 평자들과는 달리 콜라 키치오는 선조들의 믿음을 막 획득한 뒤에 자신이 벗어난 어둠의 세계를 탐사하려

을 논하려면 그의 도덕성보다는 계약에 담긴 필연성의 의미를 먼저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브라운이 악마에게 너무 쉽게 속는 점 역시 서술의 전체 맥락에 놓고 보면 그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낳는다.¹⁴⁾ 그 단적인 예로 구디 클로이즈의 환영(specter)을 접한 후에 브라운의 반응을 서술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이 장면은 세 단계의 서술로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브라운이 속는 부분은 첫 번째 단계에서 소개된다. “‘그 늙은 여인은 내게 교리를 가르쳤소,’ 그 젊은이가 말했다. 이 젊은이에게는 온 세상을 담은 의미가 있었다.” (“That old woman taught me my catechism,” said the young man; and there was a world of meaning in this simple comment, 69). 이 말은 브라운이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구디 클로이즈의 환영을 현실로 받아들인 데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다음에는 브라운이 곤혹스러워하는 틈을 타 악마가 계속 부추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설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지 않지만 악마는 “너무도 말을 잘해서 그의 논증은 마치 그 사람이 암시한다기보다는 듣는 이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듯 했다”(discursing so aptly that his arguments seemed rather to spring up in the bosom of his auditor than to be suggested by himself, 69)고 한다. “듣는 이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듯한” 설득이란 브라운의 내면적인 고민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설득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디 클로이즈의 모습에서 충격을 받은 상태에다가 악마의 설득까지 더해 브라운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브라운의 반응을 소개하는 대목은 그러한 상황을 반전시킨다.

그리하여 그 한 쌍은 아주 거침없는 걸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갑자기, 길의 어두운 후미진 데서 굳맨 브라운이 나무 그루터기에 앉으며 더 이상은 안 가겠다고 거부했다.

“친구여,” 결연하게, 그가 말했다. “나의 마음은 정해졌소. 한 발 자국도 더 난 이 불 일 때문에 움직이진 않을 거요. 망할 노파 하나

는 도덕적 사춘기의 행위로 설명한다. 그런 의미에서 콜라커치오는 브라운의 행위를 일종의 도덕적 호기심으로 해석하는 셈인데, 이 글은 브라운의 여행에서 그러한 호기심보다는 필연성이 더 핵심적이라고 봄으로써 콜라커치오의 입장과는 거리를 둔다. Colacurcio 292 참조.

14) 브라운이 악마의 환상에 고지식하게 속아넘어간다고 해석하고 그것을 바보스러운 행위로 평가하는 예로는 Levin 348 참조.

가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악마한테 찾아가고 있다 한들 그게 어떻단 거야. 그게 내가 나의 사랑스런 페이스를 버리고 그 여편네를 좇아갈 이유가 된단 말인가?”

Thus the pair proceeded, at a good free pace, until suddenly, in a gloomy hollow of the road, Goodman Brown sat himself down on the stump of a tree and refused to go any farther.

“Friend,” said he, stubbornly, “my mind is made up. Not another step will I budge on this errand. What if a wretched old woman do choose to go to the devil when I thought she was going to heaven: is that any reason why I should quit my dear Faith and go after her?” (69)

이미 앞서 충격을 받은데다가 악마의 강력한 설득까지 받으면서 ‘아주 거침없는 걸음으로’ 가는 모습은 브라운이 악마에게 넘어갈지도 모를 위기의 상황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진전되다가 마침내 브라운이 안 가겠다고 선언할 때, 그의 결단은 앞서 소개된 대목들로 인해 더더욱 돋보이게 된다. 앞에 등장한 기만과 설득의 장면들은 브라운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의 극적인 효과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악마가 속이고 브라운이 속는 상황은 결국 믿음을 지키려는 그의 최종적인 결심을 강조하는 효과에 기여한다. 이는 악마의 증거와 관련된 다른 장면들에도 일관된다. 뉴잉글랜드의 지도층이 모두 악마와 교류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브라운은 “나는 주지사나 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소.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있는 것이고 나처럼 순박한 농민이 따르라는 법은 없소”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governor and council; they have their own ways, and are no rule for a simple husbandman like me, 67) 라고 말하며, 목사과 구킨 집사(Deacon Gookin)의 증거를 본 후에는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 페이스가 있으니, 나는 그래도 악마에 대항해 굳게 버틸 거야!” (With heaven above and Faith below, I will yet stand firm against the devil! 70) 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장면들에서 브라운이 악마에게 속아넘어가는 모습은 결국 신앙에 대한 그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무시하고서 브라운이 속은 사실 자체만 놓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우문이 된다. 왜냐하면 브라운이 속았건 속지 않았건 간에 이 맥락의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일 구디 클로이즈의 증거가 속임수임을 간파했다면 브라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는 당연히 신앙을 버리

지 않았을 것이다. 악마에게 ‘속은 후에도’ 안가겠다고 결심할 정도의 젊은 이라면 악마의 계락을 간파했을 때는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도리어 브라운이 속은 것이 그의 미덕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브라운이 쉽게 악마에게 속은 점을 놓고서 그의 도덕성이나 신앙의 상태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만일 그러한 사실들이 증거가 된다면 오히려 청교주의 신앙에 대한 브라운의 헌신의 증거로 보아야 옳은 것이다.

청교도에 대한 악마의 탄핵 장면은 브라운의 신앙을 강조하는 기술적인 장치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악마가 들려주는 선조들의 악행, 예를 들어 그들이 인디언 마을을 불질렀다거나 퀘이커 교도들을 매질하여 추방했다는 사실은 미국역사의 중요한 오류들을 지적하는 것이며 건국의 시조인 청교도들과 청교도 공동체의 신성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청교도 선조들과 뉴잉글랜드 공동체에 귀속하려는 열망을 가진 브라운으로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접함으로써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마이클 데이빗 벨(Michael Davitt Bell)의 논지를 빌리자면, 그것은 청교도 선조들을 미국 혁명을 이끌어낸 숭고한 독립의 선구자로 믿는 후손이 선조들의 다른 모습, 즉 인디언과 타교파들을 억압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갖게 되는 딜레마이다.¹⁵⁾ 만일 그 후손이 청교도의 후손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으려는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다면 그럴수록 그는 혼란스러워진다. 천국의 길이 ‘아버지’와 ‘마을’의 신앙에 있다고 믿는 브라운으로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오류에 찬 선조들의 신앙을 그냥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위선적인 선조들의 신앙을 거부하고 악마를 따라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브라운에게는 단순한 역사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이 열리는냐 닫히느냐는 절대절명의 문제이다. 만일 브라운이 따르고 있는 ‘아버지’와 ‘마을’의 신앙이 그를 악마에게로 데려가고 있다면 이 신앙은 마땅히 버려져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악마가 데려가는 파멸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다.

15) Bell 9-14와 31-34를 참조. 호손 당대의 핵심적인 고민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벨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만, 브라운의 경험을 이와 연관짓는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는 같은 책의 80면에서 브라운이 숲 여행이 “스스로의 열등감 때문에 선조들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한 방식”(a way of getting back at his ancestors for his own sense of inferiority)라고 말하면서 브라운은 “존경하도록 학습 받은 고귀한 선조들의 신성한 이미지를 파괴하는”(undermining the hallowed image of the noble fathers that he has been taught to revere)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든 파괴의 행위는 브라운의 것이 아니라 악마의 것이다.

어느 길도 천국으로 인도하리라는 보장은 그에게 없는 것이다.

브라운이 선택한 길은 의외의 것이다. 그는 선조들과 마을의 신앙을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마를 따라가거나 다른 신앙을 찾으려 하지는 않는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이나 '마을의 신앙'과는 달리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청교주의 신앙에 매달리기로 선택한다. 브라운은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던 구디 클로이즈가 악마한테 가고 있더라도 자신은 페이스만 붙잡고 계속 천국의 길을 가겠다고 말한다. 브라운은 숲 바깥의 페이스가 숲의 악마적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리하여 페이스에게만 매달리면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선조들과 마을 사람들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문지 않은 순수한 신앙이 있다는 믿음이며 거기에 의지하여 독자적으로 천국의 길을 찾겠다는 결심을 말한다. 브라운은 선조들과 공동체의 오류로 흠집이 생긴 청교주의는 거부하되 그것의 원래적인 순수한 신앙을 찾아 독자적으로 매달리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브라운의 선택은 역사에 오염되기 이전의 순수한 청교주의 신앙으로의 회귀이다. 또한 그것을 찾아내어 자신을 이끌 신앙으로 다시 선포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결심은 새로운 청교주의를 향한 미래적 모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브라운은 벨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조들의 신성한 이미지를 파괴하는 열등한 후손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청교주의에 대한 비판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브라운은 그의 미래를 의지할 신앙을 찾기 위해 가장 순수한 청교주의를 찾아가는 젊은이며 역사와 현실의 오염에도 견딜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청교주의 신앙을 모색하는 젊은이인 것이다.

브라운이 순수한 청교주의 신앙을 찾아서 미래의 신앙으로 선포하려 한다면 마을에서 찾을 것이지 왜 굳이 숲으로 가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운이 악마를 만나러 숲으로 갈 필연성이 있다면, 그것은 브라운이 완벽한 청교주의 신앙을 찾는 젊은이라는 해석과는 얼핏 모순되어 보인다. 따라서 브라운의 신앙적 충동을 가장 순수한 청교주의를 향한 모색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신앙적인 모색과 악마에게로 가는 행위 사이의 괴리가 해명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의 브라운이 숲으로 갈 필연성을 해명하는 작업과 관련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앙을 완성하려는 노력에 악마의 시험이 필연으로 개입하는 또 다른 시험의 이야기로 우회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의 시험과 브라운의 시험을 연관지어 해석하는 드문 선례로는 월터 폴리츠(Walter J. Paulits)를 들 수 있다.

악마가 “남들도 다 그랬어” 식의 논증을 사용하는 소용없는 대화를 상술한 후에, 호손이 구성하는 삼부로 된 중요한 대목은 광야의 예수가 맞이한 세 가지 유혹에 대한 성경의 설명과 유사하다. 그 성경 장면에 대한 호손의 인유적 사용은 그가 공을 들이는 양가성의 주제와 일관된다.

Hawthorne, after detailing an unavailing conversation in which the Devil uses an “everybody-has-done-it” argument, constructs a major tripartite segment which has affinities with the biblical account of the triple temptation of Christ in the desert. Hawthorne’s allusive use of the biblical scene is consistent with the theme of ambivalence he is working out.¹⁶⁾

브라운의 시험에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이거나 이 세상의 권력과 신앙을 맞바꾸라는 요구에 유사한 질문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두 이야기의 유사성을 시험 장면에 국한하는 폴리츠의 주장은 사실 크게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며, 예수의 이야기가 브라운의 ‘양가적’ 반응을 뒷받침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은 부족하다. 오히려 두 이야기를 강력하게 묶는 것은 시험 이전에 설정된 상황의 구조이다. 브라운의 시험에 돌을 부여하는 상황들, 즉 아버지의 신앙에 비추어 아들임을 확인하려는 젊은이, 신앙에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악마의 시험, 그 시험이 신앙의 완성의 계기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광야에서 예수가 받은 시험의 구조를 차용하고 있다.¹⁷⁾ 브라운의 이야기는 예수가 신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신약의 시대를 열었던 거대한 사건을 구조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구도의 유사성에 주목할 때 우리는 완성된 신앙을 향한 모색과 악마의 시험을 치르는 것의 역설이 브라운의 시험에서 만드는 새로운 지평을 보게 된다. 예수의 시험에서는 신앙의 세계와 사탄의 광야, 아버지의 신앙과 아들의 믿음 같은 대립적 요소들은 더 이상 모순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탄생에 서로 기여하는 계기들이다. 마찬가지로 브라운

16) Walter J. Paulits, “Ambivalence in ‘Young Goodman Brown,’” *American Literature* 41 (1970): 579.

17) 예수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나간 곳은 광야이지만 브라운의 시험의 장소는 숲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숲(forest)은 “황야”(wilderness)라는 용어와 번갈아 쓰이며 때로는 “광야”(desert)로도 쓰인다. 예컨대 신앙을 포기하고 브라운이 광기에 찬 비행을 할 때 그의 외침은 “광야의 외침”(the cry of the desert, 72)과 하나되어 들렸다고 표현된다.

의 시험에 있는 다양한 모순의 계기들은 기존의 역사에서 악마적 오류에 훼손된 청교주의를 넘어 미래의 신앙으로 삼을 새로운 청교주의의 탄생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식민지기에 젊은이가 겪은 하룻밤 여행이 과연 예수의 신앙의 시대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 보일 수 있는가? 브라운은 과연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열 신앙을 만났으며 그가 기대한 페이스는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는가? 불행히도 이 미국의 평범한 젊은이가 목도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결한 신앙이 아니었다. 그에게 페이스는 축복받은 천사가 아니라 악마의 숲에서 헤매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운은 광야의 예수처럼 악마에 대한 찬란한 승리를 선언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다. 브라운의 이야기는 새로운 신앙의 탄생을 향한 모색이었지만 결국 그 실패의 기록이 되고 만 것이다.

“페이스!” 고뇌에 찬 필사적인 목소리로, 굳맨 브라운이 소리쳤다. 그리고 숲의 메아리들이, 마치 실성한 사람들이 황야에 살살이 그녀를 찾는 듯 “페이스! 페이스!”하고 울부짖으며 그를 흉내내었다. 슬픔, 격노, 그리고 공포의 울부짖음이 여전히 밤을 깨우고 있을 때, 그 불행한 남편은 반응을 기다리며 그의 숨을 죽였다. 비명소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더 큰 증얼거리는 목소리에 금세 묻혀버렸고 점점 먼 웃음소리로 사그라들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검은 구름이 휩쓸려 가면서 굳맨 브라운의 머리 위로 맑고 잠잠한 하늘을 남겨 놓았다. 그러나 뭔가가 공중을 통해 가볍게 하늘거리며 내려와 나뭇가지에 걸렸다. 그 젊은이는 그것을 잡았고 분홍 리본 하나를 보았다.

“나의 페이스는 가버렸소!” 망연자실한 한 순간이 지나고 그가 울부짖었다. “지상에 선은 없어. 죄는 이름뿐이야. 오라, 악마여. 이 세상은 그대의 것이니.”

“Faith!” shouted Goodman Brown, in a voice of agony and desperation; and the echoes of the forest mocked him, crying, “Faith! Faith!” as if bewildered wretches were seeking her all through the wilderness.

The cry of grief, rage, and terror was yet piercing the night, when the unhappy husband held his breath for a response. There was a scream, drowned immediately in a louder murmur of voices, fading into far-off laughter, as the dark cloud swept away, leaving the clear and silent

sky above Goodman Brown. But something fluttered lightly down through the air and caught on the branch of a tree. The young man seized it, and beheld a pink ribbon.

“My Faith is gone!” cried he, after one stupefied moment. “There is no good on earth; and sin is but a name. Come, devil; for to thee is this world given.” (71)

악마의 숲에서 헤메는 페이스의 모습은 브라운의 신앙이 나약하거나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이한 것이 아니라, 선조들과 마을의 오류에 찬 신앙을 떠나 브라운이 순수한 신앙을 추구한 결과로 만나는 모습이다. 그것이 실제 페이스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환상에 불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설혹 브라운의 환상에 불과했더라도 그것은 브라운의 병든 자아나 왜곡된 신앙의 상태에서 만난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 자기 신앙에 가장 헌신적으로 매달린 상태에 도달한 젊은이가 맞이하는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주관적인 환상이나 속임수의 의미, 혹은 이 젊은이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어떤 진실을 말하는 환상이 아니라, 가장 철저한 상태에까지 추구 되었을 때에 열리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다. 페이스의 분홍리본은 브라운의 신앙이 악마의 숲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그것이 천국의 인도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치명타이다. 브라운은 이미 ‘아버지의 신앙’과 ‘마을의 신앙’이 악마의 손아귀에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페이스, 그가 홀로 추구하던 신앙조차 악마의 숲을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브라운은 돌아갈 마을의 신앙도 잃고 따라갈 그의 페이스도 잃은 채 ‘너무 멀리’ 나와 버린 것이다. 그는 그의 신앙이 어떤 형태로든 악마와 내통하거나 악마에게 희생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브라운이 그래도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동체의 현재적 이념이건 과거의 역사적 신앙이건, 아니면 그것의 원래의 순수한 신앙이건 간에 브라운은 포기해야 한다. 신앙을 버리면 그는 영원히 타락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청교주의와는 다른 교파를 믿거나 아니면 마녀와 같은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몰라도 그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신앙에 절망하고 신앙을 추구하기를 포기한 순간 인간은 악마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

“하! 하! 하!” 바람이 그를 비웃자 굳맨 브라운이 벼락같이 소리쳤다. “우리 누가 제일 크게 웃나 들어보자. 너의 악마적 기교로 나를

놀라게 하리라고는 생각 마라. 마녀야 와라, 마법사야 와라, 인디언 무당야 와라, 악마야 직접 와라. 여기에 굳맨 브라운이 가신다. 그가 너희를 두려워하듯 너희들도 그를 두려워해야 할 걸.”

사실 귀신이 출몰하는 숲 전체를 통해 굳맨 브라운의 모습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없었다. ... 악마 본연의 모습도 악마가 인간의 가슴에서 소리칠 때보다 끔찍스럽지는 않은 것이다.

“Ha! ha! ha!” roared Goodman Brown when the wind laughed at him. “Let us hear which will laugh loudest. Think not to frighten me with your deviltry. Come witch, come wizard, come Indian powwow, come devil himself, and here comes Goodman Brown. You may as well fear him as he fear you.”

In truth, all through the haunted forest there could be nothing more frightful than the figure of Goodman Brown. . . . The fiend in his own shape is less hideous than when he rages in the breast of man. (71)

브라운에게 신앙의 포기란 그의 신앙이 천국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아니라는 사건을 목도했을 때에 생긴 반응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신앙에 대한 절망의 의미 뿐 아니라 그 신앙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기 신앙이 마련해 놓은 길을 따라가기를 포기할 때, 그는 비로소 숲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을 포기한 직후 브라운의 악마적 비행은 숲의 심장부가 모든 ‘길’이 사라짐으로써 열리는 공간이며, 브라운이 자기 신앙이 마련한 ‘길’을 포기함으로써 그러한 공간에 들어설 자격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절망에 싸인 채 미쳐서 오랫동안 크게 웃고 나서, 굳맨 브라운은 그의 지팡이를 잡고 다시 출발했다. 그것은 너무도 빠른 속도여서 마치 걷거나 달린다고보다는 그 숲길을 따라 날아가는 것 같았다. 길은 점점 더 황량하고 적막해졌고 점점 더 자취가 희미해져 더니 마침내는 사라져버렸다. 그리고는 유한한 인간을 사악함으로 이끄는 본능으로 계속 돌진해가는 그를 어두운 황야의 심장부에 남겨놓았다.

And maddened with despair, so that he laughed loud and long, did Goodman Brown grasp his staff and set forth again, at such a rate that he seemed to fly along the forest path rather than to walk or run.

The road grew wilder and drearier and more faintly traced, and vanished at length, leaving him in the heart of the dark wilderness, still rushing onward with the instinct that guides mortal man to evil.

(71)

브라운이 도달하는 숲은 모든 길, 모든 신앙의 길을 넘어서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곳은 브라운이 자기 신앙의 길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으로써 도달한 곳이며, 그런 의미에서 숲의 심장부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자, 신앙에의 집착을 버린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공간이다. 그곳은 성자와 죄인, 신도와 타락자, 청교도와 인디언, 마녀가 공존하는 혼돈의 공간이요 벗어날 길 없는 무신앙의 공간으로 보이지만 신념을 잃은 인간이 영원히 방황하는 회의의 공간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비행의 끝에서 브라운은 그의 종족의 집회("the communion of your race," 74)와 그 집회를 밝히는 '붉은 빛' (a red light, 72)을 보는데, 이 불빛은 숲에서 브라운에게 새로운 인식적 경험을 가능케 해준다. 브라운이 황량한 숲의 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집회를 보는 것도 이 불빛 때문이고 집회의 주재자인 악마적 인물을 보거나 페이스를 다시 만나는 것도 이 "지옥에서 지핀 횃불의 불꽃에 의해" (by the blaze of the hell-kindled torches, 74) 이루어진다. 불빛이 이렇듯 인식을 돕는 역할은 앞선 장면들에서 숲의 어둠("the depth of the gloom," 70)이나 구름("the depth of the cloud," 70), 땅거미("deep dusk in the forest," 66) 등이 브라운의 인식을 흐리게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브라운의 신앙포기는 그의 신앙과 그의 종족을 재인식하는 계기였던 것이며 숲의 심장부는 그러한 재인식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악마의 불빛에 비친 브라운의 신앙과 그의 종족, 즉 청교도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하며 이 숲의 심장부 장면은 그것들에 관해 어떤 계시를 열어주는가?

황야의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 악마를 숭배하는 모습은 청교도 예배의식을 악마적으로 전도한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여기서 악마가 선언하는 악마적 진리("Evil must be your only happiness,," 74)는 이 장면의 가장 섬뜩한 계시와 곧잘 동일시되곤 한다. 그러나 브라운이 신앙을 포기할 때에 이미 세상이 악마의 손에 넘어갔다고 인정한 점을 상기해 보자. 세상의 사악함에 대한 선언이 브라운에게 굳이 이 장면에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 않은가? 자신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악마의 입에서 되풀이된다 해서 브라운이 새삼스레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으며, 악마의 선언이 신앙의 숭고한 가치를 전도한 것

이라 해도 그것이 브라운에게나 독자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올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그의 선조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악마를 숭배하는 모습도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다. 브라운은 여기에 오기 전에 그들이 은밀하게 악마와 교류하며 집회로 가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페이스가 다시 이 집회에 등장한다 해도 그것이 여기서 더 충격스런 공포를 주지는 않으며 브라운과 독자인 우리는 페이스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이 장면의 가장 섬뜩한 계시는 바로 그의 종족과 페이스 뿐 아니라 악마조차도 삼킨 숲의 거대한 힘에 숨어 있다. 악마가 브라운과 페이스를 환영하는 장면을 주목해 보자.

“보라, 거기에 그대들이 서 있다. 나의 자식들아,” **절망적인 위엄**을 담은 채 거의 슬픔에 가까운 깊고 장중한 어조로, 마치 한 때 천사였던 그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의 불쌍한 종족을 위해 슬퍼할 수 있는 듯이, 그 형상이 말했다. “서로의 가슴에 의지하여, 그대들은 아직도 덕이 전혀 꿈은 아니라고 바랬었다. 이제 그대들은 미혹에서 벗어났다. 악이 인류의 본성이다. 악이 너희들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야만 하느니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나의 자식들아, 너희 종족의 성찬식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악마의 숭배자들이 **절망과 승리의** 한 목소리로 외치며 따라 했다.

“Lo, there ye stand, my children,” said the figure, in a deep and solemn tone, almost *sad* with its *despairing awfulness*, as if his once angelic nature could yet mourn for our miserable race. “Depending upon one another’s hearts, ye had still hoped that virtue were not all a dream. Now are ye undeceived. Evil is the nature of mankind. Evil must be your only happiness. Welcome again, my children, to the communion of your race.”

“Welcome,” repeated the fiend worshippers, in one cry of *despair and triumph*. (74, 이탤릭은 역자의 것)

브라운이 숲의 집회까지 온 것은 이 집단의 입장에서는 승리로 여겨진다. 브라운이 앞서 겪은 모든 여정은 숲에서 그를 부르는 종족의 부름에 응하는 과정이었으며 그의 신앙포기는 그를 부르는 이 종족의 승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브라운에 대한 그들의 승리는 순진한 젊은이를 손아귀에 넣은 악마적 종족의 즐거운 잔치가 아니다. 브라운을 환영하는 악마의 목소리에는 “절망

적인 위엄”과 “슬픔에 가까운” 어조가 담겨 있으며, 악마의 숭배자들이 보여주는 승리에도 절망이 담겨 있다. 이 종족과 악마의 승리에 담긴 절망의 정조, 이것이야말로 브라운과 독자가 예기치 못했던 것이며 숲의 심장부 장면이 새롭게 드러내는 비밀이다. 그들이 길 닿지 않는 심연에서 갖는 집회와 그들의 절망, 그리고 악마의 “한 때 천사였던 본성이 아직도 우리들의 불쌍한 종족을 위해 슬퍼”하는 모습, 그것은 마치 『실낙원』 1권의 사탄의 무리처럼 어떤 좌절의 경험을 통해 이 숲에 추락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절망은 브라운을 환영하는 이 종족을 승리자가 아니라 브라운에 앞서 절망한 자들로, 심지어 악마조차도 이 숲의 심연에 삼켜진 희생자로 드러내 보인다. 악마조차도 희생자로 존재하는 공간, 거기에 가두어진 그의 종족의 좌절과 절망,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계시이다. 그것은 브라운에게 악마보다도 더 크고 ‘악마적인’ 숲의 존재를 알려주며, 그가 청교주의 신앙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신앙을 의지하더라도 그 곳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인디언의 무당(“the Indian priests, or powwows,” 72)이나 마녀(“Martha Carrier,” 73), 혹은 타락한 죄인조차도 이 숲을 벗어나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다. 청교도들 뿐 아니라 이 황야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저주받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운의 신앙 뿐 아니라 이 황야의 모든 신앙이 이 숲의 악마적 힘에 놓여 있으며 어떠한 신앙도 이제 천국의 길을 브라운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브라운에게 강요된 유일한 선택은 악마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선조들처럼 숲에 삼켜져 악마의 숭배자가 되기를 받아들이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운은 그 길을 결연히 거부한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페이스이다. 그는 페이스는 아직 그를 이끌 신앙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는 악마에게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불안에 떠는 그의 페이스를 다잡아 다시한 번 천국을 향하고 악마에게 저항할 것을 명한다(“Faith! Faith!” cried the husband. “Look up to Heaven and resist the Wicked One!” 74). 그것은 숲의 악마적 신앙으로 개종하기를 거부하는 최후의 저항이자 브라운이 청교도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위였으며, 브라운을 숲에서 벗어나 마을로 돌아오게 해 주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브라운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영원히 닫는 선택이 되어버린다. 왜일까? 우리는 마을에서의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달라졌으며 그것이 결코 신앙의 품에서 보낸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했음을 전해 듣는다. 그의 인생에 대한 최후의 기록은 “그의 묘비에는 어

편 희망의 시구도 새겨지지 않았다. 그의 임종의 시간은 암울했기 때문이다”(they carved no hopeful verse upon his tombstone; for his dying hour was gloom, 75)라고 써어진다. 그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천국으로 가지 못한 것이다. 숲에서의 장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인생은 죽음과 같이 되었으며, 그는 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신하고 자다가도 페이스의 품에서 움츠리며 피하게 되었을까?¹⁸⁾

브라운의 최후의 저항이 갖는 역설은 그것이 숲의 악마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 사실에 있다. 브라운이 페이스에게 절박하게 천국을 보고 악의 세력에 저항할 것을 외칠 때 그와 페이스와의 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브라운은 그의 신앙 더러 천국을 향하도록 ‘명령’했다. 자기 신앙에 대한 최후의 헌신은 브라운에게 자신의 신앙에게 명령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자기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끄는 자가 됨으로써 그는 도리어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죄인이나 타락자, 그리고 이단적인 신앙인, 심지어 비신앙자보다도 더 끔찍한 운명을 향한 선택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신앙을 짊어지고 신앙에게 천국을 보여주며 이끄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향하는 천국이 이 악마의 숲보다 더 끔찍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준해 줄 신앙은 더 이상 없다. 그는 그의 자아가 이끄는 충동에 따라 스스로 천국이라고 믿는 곳을 향해 가야 하며, 이제 그에게 신앙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된다. 신앙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앙은 더 큰 공포가 된다. 브라운은 신앙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가 신앙을 인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이 그의 주인이라 믿는 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으로 그를 데려가는지 악마의 숲으로 데려가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브라운의 길 잃은 자아밖에 없다. 의지할 신앙을 잃고 신앙의 주인이 된 인간은 애써 안심하며 살더라도 어느 순간 그의 신앙의 품에서 겁먹고 피할 수밖에 없다. “종종, 자다가도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서는, 그는 페이스의 가슴에서 움찔 물러났다.” (Often, awaking suddenly at

18) 이것을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혼자만이 악마에게 벗어나 있다는 교만함’으로 해석되기 쉽다. 마틴은 브라운의 “실질적인 자기중심주의”(his virtual solipsism)가 도덕적 현실에 대한 전도된 인식을 절대화함으로써 생긴다고 말한다. 심리주의적 독법에서 이와 유사한 결론을 보이는 예로는 트리트이 있다. 그는 결말부의 브라운이 혼자만 악마에게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식을 다른 이들에게 투사하며 사는 인간이라고 말한다. Martin 87과 Tritt 117 참조.

midnight, he shrank from the bosom of Faith, 75)

그렇다면 브라운에게 천국을 보여줄 신앙은 있거나 했던 것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또하나의 선택은 브라운이 그의 신앙과 더불어 악마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 악마의 집회에서 악마는 창세기의 사탄이 금단의 열매를 유혹하듯 새로운 앎("the deep mystery of sin," 74)을 약속하면서 브라운의 개종을 요구한다. 악마의 유혹 앞에 선 브라운과 페이스의 모습은 분명 제2의 창세기적 신화의 주인공이다. 그들이 악마의 세례를 받으면 지금껏 악마의 영역으로만 보인 이 숲이 새로운 천국의 동산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신앙인 페이스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별거벗은 이브의 모습으로 브라운에게 다시 나타나고 숲은 브라운이 그의 신앙과 더불어 '생육하여 번식할' 새로운 터전이 될 수도 있다. 그 때에 다시 열리는 신앙은 그들을 저주에 가두지 않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천국의 비밀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이 있다 해도 그것은 브라운이 그의 신앙과 더불어 숲의 악마의 세례를 받아들일 때에만 드러날 수 있는 비밀이다. 그리고 그것은 브라운에게 영혼의 죽음을 대가로 요구한다. 악마가 유혹하는 비밀의 문턱을 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신앙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며, 그 너머에는 다시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 중의 아무도 브라운이 악마의 세례를 받았으면 '천국'을 보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브라운에게는 분명 죽음으로만 보인 길이며 작품은 그 너머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 작품은 오직 브라운이 택한 하나의 길과 그것의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브라운이 선택한 마지막 저항이 가장 불행한 죽음의 상태로 귀결한 것을 보면, 숲이 요구한 '죽음'의 길만이 새로운 천국을 향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는 것은 분명하다.

III.

이 작품은 미국을 태동하고 추동한 이념으로서의 청교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이념적 지표로 삼은 청교주의가 역사에서 오류를 범했고 다른 교파나 인디언들에 대해 박해를 했다는 정도의 비판을 넘어선다. 브라운은 역사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의지할 수 있는 청교주의 신앙을 찾아가지만 그가 본 페이스의 모습은 그러한 오류 이전에 이미 그의 신앙 자체가 악마의 숲을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브라운의 신앙포기는 미국의 건설 과정에서 오류를 낳고 실수를 범한 역사 뿐 아니라 순수한 청교주의 이상 자체에 대한 포기까지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브라운이 느낀 절망은 곧 미국의 근대를 연 이념으로서의 청교주의에 대한 절망이며 따라서 미국의 성립 자체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은 그러한 비판과 부정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이 작품의 이야기의 전부였다면 숲의 악마적 집회에는 청교도들만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작가는 미국의 청교주의가 실패한 신념일 수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국의 미래를 이끌 신앙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숲의 심장부에서 브라운이 얻은 계시는 청교주의 이념을 정화하거나 청교도들의 역사적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미래의 지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신앙을 선택함으로써 천국으로 가는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숲의 심장부의 경험은 이 청교도들이 위대한 역사의 개척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악행의 가해자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품이 그러보이는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황야의 숲에 삼켜지고 저주에 가두어진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브라운에 앞서 이 숲에 들어간 자이며, 그들은 어쩌면 브라운과 마찬가지로 이 숲에서 '천국'의 길을 열 새로운 신앙을 선포하려는 거대한 '임무'를 갖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근대의 전초기지로서 미국이 추종한 이념이며, 낡은 중세의 삶을 넘어서 이 신대륙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구현하려는 꿈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브라운의 경험은 이 황야가 그들이 새로운 신앙을 선포할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삼키고 절망케 만드는 저주의 '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삶은 이 황야에 선포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숲은 낡은 신앙이 장소를 옮겨 선포되기만 하면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터'에서 동화되는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종족을 요구하는 것이다. 브라운의 장렬한 저항과 그의 불행한 인생은 황야를 그들의 '낡은' 신앙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에서 새로 탄생되는 과정을 맞대면하지 못한 종족의 실패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황야에 삼켜질 수도 있는 것이다. 작품은 이 공동체의 재생의 가능성과 미래를 위해 이 숲의 악마적 힘으로의 개종하는 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 놓는다. 그러나 숲의 악마적 신앙에 개종한 이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 아니면 새로운 천국으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것을 브라운은 알 수

없었으며 작가도, 우리 중의 누구도 브라운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이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작품은 오로지 브라운이 택한 하나의 선택과 그것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브라운은 숲의 악마적 신앙을 오로지 자신의 신앙이 규정하는 바의 악마와 죽음의 신앙으로만 인식하였으며 그래서 그 비밀의 문턱에서 공포에 질렸다. 따라서 그는 청교도의 후예답게 장렬한 최후의 저항을 선택하였다. 그의 선택은 신대륙에 건너 온 유럽의 청교주의가 이 황야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극단적으로 완성된 상태의 청교주의를 향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재생의 가능성이 없는 유령과 같은 죽음의 상태로 귀결된다. 우리는 이 신앙의 극단이 가장 끔찍한 무신앙의 상태로 귀결된 것을 보게 된다. 브라운의 최후의 순교자적 행동은 그를 신앙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신앙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버렸으며, 이제 그의 주인 없는 자아는 천국의 길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브라운 이후의 '근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의 후손들의 운명에 대한 예견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의 '죽음'과 같은 삶에 이어 그의 장례식을 따르는 브라운의 많은 자손들("followed by Faith, an aged woman, and children and grandchildren," 75)을 본다. 이들은 분명 "죽음"의 비밀을 넘어 새로운 신앙을 찾기를 거부한 브라운의 후손들이며 이 식민지의 미래의 주민들이다. 작가 호손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악마의 숲에 삼켜진 청교도들의 후예인가 아니면 악마의 숲에 저항한 브라운의 후예인가?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고 죽음 속을 헤매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이 신대륙의 숲에서 새로운 신앙을 갖고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는가?' 근대를 살아가는 브라운의 후손들이 이 황야를 정복하여 번영의 정점에 선 어느 순간, 그들은 이 황야가 그들에게 저주의 장소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좇는 신념의 따뜻한 품에서 겁을 먹고 달아나고 싶어질 수 있는 것이다.